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논란

국토부·LH 등 공공기관 관련자 3기 신도시 6곳 투기 전수조사

문 대통령 “의혹 없게 고강도로 조사” 지시
LH, 사전 땅 투기 직원 13명 직무 배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자 3기 신도시 6곳 전제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며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택지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며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체와 국토부 직원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이번 사태로 3기 신도시 정책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LH는 2일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자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관련된 LH 직원 13명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등이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하자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 직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GS건설 ‘자이안 비’ 컨시어지 서비스 확대 협약

GS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자이갤러리에서 ‘자이안 비 컨시어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GS칼텍스와 오토모아시스로 유명한 차량정비 서비스업체 GS엠비즈, 금영엔터테인먼트, 자란다, 도그메이트, 와오, 청소연구소, 미소, 세차왕 등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 자이앰을 이용하는 자이 입주민은 해당 업체의 VIP 회원급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GS건설의 ‘자이안 비’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로 자이 입주민이나 자이앰 이용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층간소음 잡아라”...팔 걷은 대형 건설사들

롯데건설 소음진동 솔루션팀 신설 내년까지 ‘EPP 완충재’ 개발 박차 DL이앤씨 ‘노이즈 프리’ 특허출원 현대·포스코도 소음저감 기술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불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취제, 안상제 등 유명 방송인들이 층간소음의 가해자로 지목돼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터넷에서는 고가의 팔전도 스피커 같은 ‘층간소음 복사 도구’가 큰 인기를 끄는 등 층간소음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 이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강화된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잠재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한 층간소음 이슈에서 한발 앞서 가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소음 진동 솔루션팀 신설한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제로화’를 목표로 기술연구원 산하에 소음 진동 전문 연구부서인 ‘소음 진동 솔루션팀’을 신설했다. 최고급 호텔과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며 노하우를 습득한 소음, 진동, 구조, 콘크리트, 설계,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13명으로 구성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분산돼 있던 업무와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완충재 및 신기술 개발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제로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찍감치 층간소음에 주목했던 롯데건설은 2015년 롯데케미칼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고무 재질의 완충재 소재를 활용한 60mm 두께의 최고등급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했다. 작은 사진은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인 ‘롯데케미칼 EPP 소재를 활용한 완충재’ 적용 이미지. 사진제공 | 롯데건설

이미 롯데건설은 2015년 롯데케미칼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고무 재질의 완충재 소재를 활용한 60mm 두께의 최고등급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완충재를 대구 남산 2-2현장 등 여러 현장에 적용해 층간소음을 개선하고 주거 성능 혁신을 선도해왔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은 흔히 손가락, 플라스틱 등 딱딱하고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과 발뒤꿈치, 농구공, 망치 등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 두 가지로 나뉜다. 층간소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량 충격음으로 롯데건설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이 부분 해결에 주력할 계획도 갖고 있다.

롯데건설이 새롭게 선보일 완충재는 ESG 경영 강화에 따라 롯데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인 EPP(Expande

d Poly Propylene·발포 폴리프로필렌)를 활용할 예정이다. EPP는 기존의 층간 완충재에 사용하는 재료에 비해 내구성 높고 스티로폼 부표 소재 대비 부스러기 등이 발생하지 않고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 완충재를 2022년까지 개발해 롯데캐슬과 르엘 현장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엔지니어링(ENG) 센터 산하에 석·박사급 인력 10여 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는 층간소음 원인과 분석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까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해결책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출원까지...볼볼은 기술경쟁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지난해 콘

크리트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위에 3개 층을 겹겹이 쌓아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노이즈 프리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 현대건설은 5단계로 적용되는 층간소음 저감기술인 ‘H사일런트 홈’을 올해부터 선보였다. 바닥재 성능을 강화하고 두께를 늘리는 동시에 사전평가와 검수도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습식 바닥구조의 기포 콘크리트 대신 완충재 두께를 60~70mm로 대폭 늘려 층간소음을 줄이는 ‘반전식 바닥 시스템’을 개발해 청주 가경 아이파크 3·4단지 등에 적용하고 있다. 반전식 바닥 시스템은 단열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소재를 접목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강성보강 바닥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오늘부터 1순위 청약

제일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780가구를 공급하는 ‘고덕강일제일풍경채’가 4일부터 1순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 84~101㎡로 건설되는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 규제 적용을 피한 마지막 서울 아파트 단지이다. 지난달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덕에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피했다. 780가구 중 추첨제로 공급되는 가구는 총 219가구다. 3.3㎡당 평균 분양



가는 2430만 원. 전용 84㎡는 8억1470만~8억9990만 원, 전용 101㎡는 9억5640만~10억8660만 원이다.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3일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 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책임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

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13개소, 186세대가 신청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8개소가 신청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보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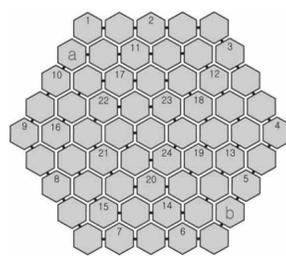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1	7				
	9	6				4	7	
	4		6		8		1	
7		9		5		3		
6			7		9			4
		2		6		8		7
	7		5		3		8	
	6	3				7	4	
			1	7				

■ 스도쿠정답

			5		1	7	3	
	9	6		4			7	
	4		6					5
7		9			7	5	2	
6			7		6			9
		2		6		9		4
	7		5			2		3
	6	3				1	5	
			1	7				

■ 낱말문제



■ 열쇠

01.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리는 행위.
02.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해 내는 사람.
03.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
04. 가늘게 내리는 비.
05. 여럿이 다 같이 고르지 아니하게 조금씩 내밀러

있는 모양. 06. 꺾질만 생겨 알이 속에 들지 않은 곡식 등의 열매. 07. 이가 되든지 해가 되든지 간에. 08. 북잡한 것을 간략하게 함. 09. 한데에 장작을 모아 질러 놓은 불. 10. 어떤 일에 몰두해 설 새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음. 11.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 12.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따라서. 13. 물건 값이 오르지만 함을 이르는 말. 14. 지상에서 공중으로 향함. 15. 두 손을 땅에 짚고 두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반대 방향으로 넘는 재주. 16.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17. 재주 있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18.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 19.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해 마련하여 둔 돈. 20.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정부에서 부르지 못하게 한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쓴 다음 a, b칸을 이어 놓으면 꽃이름이 됩니다.

